

한국 화엄의 태두 생애 조명

낙산사 의상기념관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



7세기 신라사회는 삼국간의 항쟁을 마치고 넓어진 영토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통일기의 중심에 서서 활동했던 수행자가 바로 의상(義相·625~702) 스님이다.

낙산사 의상기념관에서 펴낸 <의상의 사상과 신앙연구>(불교시대사)는 사상가, 구도자, 실천적 신앙인이었던 의상 스님 관련 논문 400여 편 가운데 12편만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제도>를 보자. 이것은 신라 통일기 화엄교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엄사상이 근간이 되고 있다. 흔히 법성계로 부르는 이 계승은 지금 625~702) 스님이다. 의상 스님의 <화엄경>의 대의를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상계 화엄을 배울 수 없을 정도다.

사실 수행자의 행적은 사상을 되비치는 거울이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상황 속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시대의식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 속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을 그려보는 것은 역사적 사상 탐구 작업의 중요한 과제다.

'의상의 생애와 신앙', '의상의 화엄사상' 등 2부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상 스님의 사상과 행적의 진면목을 추구한 한국불교학계 노력을 결집했다고 할 수 있다. 값 2만원.

김종근 기자

즐거움 직장생활이 성공인생

'나는 산사로 출근한다'

루이스 리치몬드 지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에 따라 직장 문화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만연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신간 <나는 산사로 출근한다>

인의정 옮김, 도솔출판 루이스 리치몬드(美 명상가는 직장 문화가 이렇게 변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

예화와 사업 지혜 등이 골고루 섞인 이 책은,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성공이라고 적고 있다. 지은이는 직장에서의 위치나 업무 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신의 내면생활을 주관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직장이 내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은이는 이런 주장을 간호사, 배관공, 택시운전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지은이의 불교적 세계관과 여러 경험에서 얻은 지혜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에서 내면생활을 풍족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방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값 7천9백원.

김종근 기자

3·1운동 불씨 스님들로 부터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해봉 스님 지음

지난 93년 친일불교론을 내놓았던 해봉(이천지족암 주지) 스님이 이번에는 불교계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세세히 살핀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를 출간했다.

이 책은 크게 의병항쟁기에서 1940년대까지의 병합운동 한 스님과 의병전쟁 관련사찰, 항일운동을 한 스님과 재가자를 그리고 광복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항일공적 등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문은 국채보상운동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했다는 사실과 1918년 제주도 법정사의 항일무장투쟁은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백46원76전을 나라 빛을 갚는 의연금으로 냈다. 대한매일신문과 황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화장사, 금강산 유점사와 부

제주 법정사 무력투쟁 등 숨겨진 독립운동 밝혀내 국채보상운동 교계 주도

설학교인 유신학교, 합천 해인사, 공주 신원사, 경남 고성 와룡사 등에서 586명이 479원 11전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자료로 남아 있는 통계일 뿐 사실상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사찰과 불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지은이의 견해다.

책은 또 3·1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항일 비밀결사 모임인 만담의 주역들. 뒤줄 우측 두번째부터 최범술, 김법린, 허영호, 앞줄 우측 첫번째 김삼모, 네번째 정유문.

'금인' 김용길 지음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글창제 배경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금인>(김용길 지음, 명상)이 나왔다. 지은이는 중국 상고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용길 씨. 그는 10여 년 전 중국의 금문학자인 낙봉기 씨의 고대 청동기에 새겨져 있던 문자를 해석한 <금문신고(金文新考)>를 공부하면서 '공자가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지은이는 "중국 문자 속에 들어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풍

한글창제·상고사의 진실 추적

속 등을 문자로 풀어 밝혀낸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고사와 고대 금문과 갑골문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한국어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 중국 문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한단고기>에 있는 가림포 33자를 간추린 것이 훈민정음 28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여진족의 선조는 누구인가, 한글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단군 조선의 영역 및 중국 상고사와의 관계 등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외시했던 상고사 시대 이후의 우리 역사 비밀을 파헤친다. 값 2만5천원.

김종근 기자(garnia@buddhapia.com)

새로운 책

▲번뇌 태우는 옥색(지성 스님 지음, 옥천사) = 경남 고성사암연합회장 지성(옥천사 주지) 스님의 법문집.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리와 선(禪) 등에 대한 31편의 법문들은 읽는 이에게 참 불자로 가는 길을 일러준다. 마치 자신의 일기를 쓰듯 써내려간 이 책은, 생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단아한 어조로 들려준다. 수행력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글들이다. 값 7천원.

▲어둠의 타이오즈(박은혜 옮김, 모색) =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며 자신을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런 가르침을 줬던 무묘양에오의 <페허의 붓다> 등 예오전집(8권)에서 요점만을 뽑아 만든 예오전집 핸드북. 철학·명상 등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어 예오의 독특한 사상을 사전식으로 살필 수 있다. 값 1만8천원.

▲자유로운 여성이 되라(요소 라즈니쉬강의, 손민규 옮김) = 진정한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모색하는 요소의 여성 명상록. 6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남성우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받은 여성의 삶을 사랑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결혼, 가족제도, 여성해방운동,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값 9천8백원.

▲명실 열국지전5권, 유재주 지음, 김영사 =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550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다룬 대하 장편소설. 강태공, 공자, 손자, 진시황 등 난세를 헤쳐 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 소설은, 200여개의 고사와 100편의 일화(가)가 녹아 있어 2500년 전 중국의 역사와 이 시대의 삶의 지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이번엔 출간된 5권은 1부로 춘추시대 초 중반 시기에 해당된다. 이 소설은 모두 3부 1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값 7천5백원.

▲신 탄트라-성에서 초의식까지(황금꽃) = 탄트라(의 가르침을 현대화한 책. 성 에너지를 초의식을 변형시키는 법에 대한 인도의 스승 오소의 생생한 강의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제자인 버나드 쿼터가 수백권에 달하는 오소의 책에서 탄트라에 관한 내용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또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탄트라 CD'도 들어 있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값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의 행자시절	박인자	다림미디어
2	선의 나침반	현 각	열림원
3	참회 참회 기도법	김현준	효림
4	절음 기차게 잡하는 법	청견	붓다의마을
5	선방일기	지희	여시아문
6	순간순간이 항상 옳고 완벽함	정경하	남
7	영가천도	우룡	효림
8	목조선 연구	김호규	민족사
9	화두 놓고 영물하세	인광	불광
10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원(현구원)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어 른 과 아 이 가 함 께 읽 는 동 화



나의 작은 별 이야기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네 걸음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뿐이야. 그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가?

마음의 연못에서 길어 올린, 존재와 사랑에 대한 샘물 같은 깨달음!



이안 글/그림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심대에 불교에 입문하여 생활선(生活禪)을 수학했다. 집필과 출판일을 하며 존재의 본질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반화·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장본 윗컬러/204쪽/값 8,000원

씨앗을 부리는 사람 TEL:(02)511-3495-6 FAX:(02)511-3498

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네 가지 약속

지치고 힘겨운 영혼을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특별한 약속들!

돈 미구엘 루이스의 글은 세속에 찌든 우리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는 '영혼의 해독제'이다. 당신은 이제 '네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된다.



5년 연속 아마존 비소설 부문 초베스트셀러

돈 미구엘 루이스 지음/정미선 옮김 양장본·윗컬러/184쪽/값 8,000원